

# 발길이 딱 멈춘다, 머물고 싶은 곳 여수



여수시가 생태·휴양 관광이 복합된 체류형 도시를 본격 육성한다.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 한 해 1000만명이 다녀가는 해양 관광지로서 거듭났고, 지역의 365개에 달하는 섬을 활용해 '오래 머무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국제해양관광 명품도시 비상

◇'머무르는 여수' 건설=지난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활짝 연 여수시가 명실상부한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구호와 함께 지난 7월 출범한 민선 6기 여수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관광분야 육성정책으로 국제적인 해양관광 명품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천혜의 보고(寶庫)인 365개의 섬관광 활성화 정책 등 생태·휴양이 복합된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금오도 생태휴양 시설과 안도 동고지 명품마을, 거문도 벵노래길 조성 등 생태관광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남면 안도 서고지 항에 200억원을 투입해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고, 동고지마을에는 13억원을 들여 '명품마을'을 조성한다.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소리만 섬탈선 일원의 복산리와 사곡리 일대에는 '여자만 연안 생태 휴양마을'을 조성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생태마을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성

365개의 섬 생태휴양관광자원 개발 815억 투입 마린나항 2017년 조성 용천지구 해양레포츠타운 12월 완공 개통 앞둔 해상케이블카 관광객 유치 역사·문화·예술융합 해양관광도시로

리 해수욕장 배후부지 개발사업에 647억원을 투입, 오는 2018년까지 고품격 레저·휴양단지를 조성한다.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기반사업도 중점 육성된다. 815억원이 투입되는 거점형 마린나 항만이 오는 2017년 여수박람회장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6개 거점형 마린나 항만 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여수 용천 택지개발지구에 36억원을 투입한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 기반사업도 중점 육성된다. 815억원이 투입되는 거점형 마린나 항만이 오는 2017년 여수박람회장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6개 거점형 마린나 항만 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해양 관광 중심지로 부상=여수 세계박람회는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던 여수의 잠재력을 단숨에 폭발시켰다. 박람회를 계기로 도로 교통 등 SOC(사회간접자본)가 크게 개선됐고 특급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만들고 내년 조성될 15만급 크루즈 접안시설과 거점형 마리나 항만 시설로 해외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인지도를 활용해 사계절 체류형 명품 힐링·웰빙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변 카페를 조성하고, 그리스 산토리니를 능가하는 컬러 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예술을 융합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포츠 타운과 해양낚시 공원, 낚시레포츠 센터 등을 건립, 해양스포츠 제전과 레포츠 체험행사, 시장 배 카약대회 등도 개최한다. 여수시는 또 ▲거문도·백도·금오도를 생태관광단지로 ▲경도·소호동은 해양레포츠마린나 단지로 ▲여자만과 화양지역은 휴양·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한다.

◇다시 찾는 해양 관광지 조성=여수시는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지속을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바다 위를 통과하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시는 아름다운 여수 바다와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도심순환 2중정 투어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 개최하는 '제10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을 계기로 여수를 독보적인 국내 해양스포츠 메카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종합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주차 및 교통·보안·위생·숙박·먹거리 등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동도



돌산대교 야경

##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

13~15일 다채로운 행사



'제14회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여수시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관광객을 위한 체험행사와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한다.

첫날인 13일에는 김늘이와 거문도 뱃노래 공연에 이어 개막식, 인기 가수 초청 공연, 불꽃놀이 등이 열린다.

둘째 날부터 은빛 가요제, 활어 맨손 잡기, 전통 때배 체험, 거문도 해안 절경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또 축제 기간에 거문도·백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은빛 갈치구이, 자리돔 불회 등 자연 특산물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삼산면사무소와 축제위원회 포함 28개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기관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해인 삼산면장은 "신비의 자연을 간직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거문도·백도에서 관광객들이 소중한 추억과 낭만을 담아갈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온 힘을 쏟겠다"며 "대표적 여름 축제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알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시 인구 늘리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여수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범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여수시는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시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특히 인구유입과 유출방지, 출산을 증대, 여수시민 되기 운동 활성화 등 지역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제안서는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여수시 안전행정과 방문 및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채택된 제안에 대해 금상 1명(100만원), 은상 3명(50만원), 동상 5명(30만원), 장려상 10명(1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061-659-3108)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위장병, 반복할 것인가?**

지긋지긋 반복되는 위장병! 시도 때도 없이 괴로운 위통, 속쓰림, 소화불량에 오해 내내 불편한 더부룩함과 답답함, 신트림 등... 위장병은 왜 반복될까요?

문제는 바로 위장약! 손상된 위장막은 반복되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병은 위장약부터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베진으로 회복할 것인가!**

지긋지긋한 위장병을 개선시키는 4가지 효과! 새로 나온 카베진코와S정

- MMSC 성분으로 위장막 회복 효과
- 재산성분 배합으로 위산 자극 완화 효과
- 칭솔진조염소 함유 위 운동 촉진 효과
- 리파제 AP12의 소화 작용 촉진 효과

카베진코와S정의 2중정 작용

위장병을 회복할 땐 **카베진코와S**

위장약 **카베진코와S** MMSC 위장막 수복효과 진위생약 칭솔진조염소 소화효소 리파제AP12 100정 [일반의약품]

\*MMSC(메틸에티오닌산포도당화물)란? 양배추 추출물의 황산화성분인S-메틸렌 나리코도 불리며, 위장막 수복 효과와 긴 장에 대한 개선효과 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1) Jpn Pharmacol Ther(약리와 치료) 35(1), 41-49(2007)

오존과 핵종이 2중정제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각 성분이 위장병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함. 다. 복산성 성분인 위통, 속쓰림, 신트림,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 완화 + MMSC의 위장막 회복